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71)」 2016년 8월 30일 호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프로듀서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현재, 오카야마시가 몰두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 (신 시민 회관)」의 정비에 참고하기 위해 6월에 기타큐슈 예술극장, 8월에는 카나가와 예술 극장과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카나자와 시민 예술촌을 시찰했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관장 이하, 모든 직원분에게 극진하고 정중한 설명을 들었고, 기타큐슈 시를 시찰할 때에는 기타하시 시장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인사하러 와주시는 등, 관계자 모든 분에게 정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의 시찰은 하드와 소프트 양면의 시설 정비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귀중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드 부분은, 모든 공연이 대응이 가능한 훌륭한 가동식 홀에 놀랐습니다. 안, 시설에서도 입을모야 자주 사업(自主事業) 등이 활용될 수 있는 스튜디오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신 시민 회관을 정비시에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 가능한 시민의 요구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소프트 부분의 충실입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매력적인 공연을 유치한 카나가와에서 올해 수개월에 걸쳐 공연한 극단 사계의 공연은, 사전 교섭이나 준비에 약 2~3년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 기타큐슈 시에서는 70년의 역사가 있는 「극단 청춘좌」를 비롯하여 시민 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도 활발하여, 기타큐슈 시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딱 맞아, 이렇게 자주사업을 활발하게 이루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문화 예술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부터 유치한 공연과 시민 등이 창작한 자주사업의 균형이 중요하며,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제작 하고 시민 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을 이끌어가는 프로듀서의 존재가 불가결합니다. 이번의 시찰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의 연초가 신축한 극장의 첫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5년 반. 시간은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 시민회관 정비의 계기로 오카야마의 문화 예술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민 모두와 함께 생각해 가고 싶습니다.

※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 (신 시민회관)」은 가칭입니다. 시행되는 사업을 이미지 하여 빨리 새로운 명칭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